출판 도시, 책마을, 서점 거리

최성일*

콤플렉스(complex)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관념 복합체라고 번역되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을 말한다. 이를 정신분석 병리학 용어로 처음 사용한 이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요법의 단서를 연 J. 브로이어였고, 이 용어를 가장 강조한 것은 칼 융이었다.

융은 언어 연상 실험을 통하여 특정 단어에 대한 피검자의 반응시간 지연, 연상 불능, 부자연스런 연상 내용 따위가 이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열등감(inferiority complex), 우월감(superiority complex), 엘렉트라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신데렐라 콤플렉스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복합 단지를 의미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렸던 잠실 주경기장과 주변의 야구장과 체육관, 그리고 수영장을 합쳐 스포츠 콤플렉스라 일컫는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는 콤비나트가 쓰인다. 콤비나트(kombinat)는 러시아어로 기술적 연관이 있는 여러 생산 부문이 근접 입지하여 형성된 지역적 결합체를 가리킨다.

결합을 뜻하는 콤비나트는 공장 결합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물은 원료에서 완성품에 이르는 제조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다른 몇 개의 생산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오늘날의 산업에서는 대체로 생산 단계마다 개별 기업이 그 과정을 분담한다. 서로 연관 있는 기업의 공장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바로 콤비나트다.

콤비나트에서는 원료의 확보, 제품의 제공이 공장간에 직접 이뤄진다. 또한 시간적 · 공간적으로도 낭비 없는 합리적인 형태를 취한다. 게다가 생산의 부산물인 산업 폐기물까지도 유효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커서 매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생산 형태라고 한다. 콤비나트는 1928년 구소련에서 철광과 석탄 부문에서 시작돼 일정한 성공을 거뒀고, 석유화학 콤비나트는 서방세계에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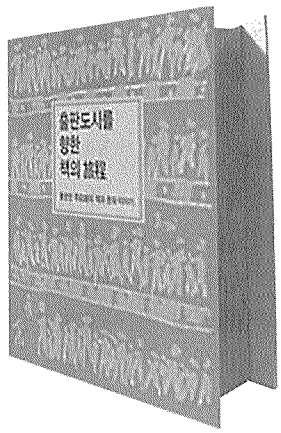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출판산업단지는 일종의 콤비나트다. 여기에는 출판사는 물론이고 제지공장까지는 아니어

* 출판평론가, robli@greechal.com

도 종이를 취급하는 지업사와 인쇄소, 편집 대행 및 디자인 회사, 물류 창고와 도서 유통 업체가 들어서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일본 출판업계와 인쇄업계가 공동으로 출판인쇄 콤비나트를 구축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진 못한 것 같다.

반면, 한국은 1988년 1월 출판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7년 만에 그 첫 삽을 뜨기에 이른다. 정부는 1994년 7월 1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안을 확정 발표한다. 이어 1995년 10월 20일에는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명명식을 갖는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파주 출판단지에는 내노라하는 단행본 출판사와 인쇄소, 물류창고와 유통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기웅 파주 출판단지 이사장의 『출판도시를 향한 책의 여정』(눈빛, 2001)에서는 제목이 시사하듯 출판단지 조성의 진행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파주 출판단지에 대한 이기웅 이사장의 의지가 읽히지만, 특히 제2부 '출판도시와 서화촌'에 놓인 글들이 눈길을 끈다. 이기웅 이사장은 출판단지 구상을 '출판의 청색혁명'이라 칭한다. "종합문화타운 건설의 구상은 쇠잔해진 우리 시대의 정신에 푸른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청색혁명' 선언이요, 그 실천 공약이다." 또한, "1995년 10월, 한국토지공사가 통일동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밑그림을 제시한 '서화촌'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책마을 두 곳을 모델로 삼고 있다. '헤이온와이'와 '레뒤'가 바로 그곳이다."

벨기에 레뒤 마을

〈MBC 가이드〉 1994년 5월호에 실린 문화방송의 당시 베를린 특파원 신창섭 기자의 현장 리포트 「유럽의 책마을 레뒤를 아시나요?」는 한적했던 중부 유럽의 한 시골 마을이 어떻게 애서가들의 순례지로 각광받게 됐는가를 잘 보여 준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생에 한 번쯤은 레뒤(Redu)행을 해야 할 것 같다"로 운을 뗀, 신 특파원의 현장보고는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의 여행란이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관련 신문 기사 하나만을 달랑 들고 떠난 레뒤행은 순탄치 않았다. "레뒤행은 탐험에 가깝다. 처음 들어서는 미지의 길을 갈 때 방향을 정확히 잡느라, 표지판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느라 멋모르고 지났다가 돌아올 때서야 여유 있게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꼭 그런 여로이다." 그도 그럴 것이 10년 전에는 레뒤를 안내하는 관광책자가 없었거니와 그곳을 행선지로 하는 고속버스나 노선버스가 있지도 않았다.

지도를 길잡이 삼아 이리저리 헤맨 끝에 신 특파원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다. "Redu, Village du livre." 신창섭 특파원은 레뒤로 이어지는 벨기에의 국도변에 책마을을 가리키는 이정표 하나 없는 불친절을, 결국에는 레뒤를 너무 상업적 지명으로 여긴 자신의 탓으로 돌

린다. 그리고는 그의 글을 길잡이 삼아 레뒤를 찾을 사람들을 위해 그곳의 주소를 남긴다.

"17 E Rue de Saint-Hubert, Belgien 5890 Redu."

교회가 서 있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레뒤는 전형적인 유럽의 작은 마을이다. 그런 레뒤가 유럽 전역은 물론이고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것은 책 덕분이다. 천년의 세월을 농업과 임업으로 삶을 영위하던 레뒤 마을에도 2차 대전 후 이농의 물결이 밀어닥쳤다. 젊은이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자 빈집이 생겨났다. 그러던 중 1981년 레뒤 마을은 옹셀로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는다. 신 특파원이 들려준 '책마을 창설 비화'는 이렇다.

"옹셀로씨는 브뤼셀의 석유 회사를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레뒤 인근에 성을 한 채 살 계획을 세웠다. 그건 부인의 부탁이기도 했는데, 늘그막에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옹셀로씨는 그 성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착상을 했다. 공기 좋고 한적한 이 촌락에 뭔가 '많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을 미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 관심을 끌 것이라는 것. 그 많은 것의 대상이 바로 책이었다. 쌈박한 아이디어다. 물론 책마을 아이디어는 옹셀로씨의 특허품은 아니다. 그는 영국 웨일즈에 있는 헤이온와이 책마을에서 힌트를 얻었다. 헤이온와이는 마을의 내력이나 성격이 레뒤와 흡사한 책마을 원조격으로 2백 만 권의 책이 쌓여 있는 그야말로 책의 수도이다. 현재 레뒤와 헤이온와이는 자매 마을이다."
(〈출판저널〉 제150호, 1994년 6월 5일자에서 재인용)

아무튼 옹셀로씨가 데려온 브뤼셀의 서점인들은 레뒤의 헛간이나 처마 밑에 책방을 차린다. 레뒤 마을의 학교 교실, 사제관, 외양간 등을 서점으로 개조하는 한편, 방송매체의 힘을 빌려 책마을 붐을 조성한다. 1984년 부활절에는 수만 명의 책 애호가를 불러들여 책 축제를 펼치기에 이른다. 이렇게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생겨난 카페와 식당, 그리고 가게만 해도 100여 개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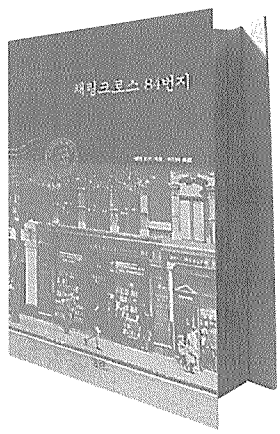
또한, 1994년을 기준으로 주민이 400여 명에 불과한 레뒤 마을의 책방은 24곳이고, 60만권의 책이 있다. 한 해 방문객은 20만명을 헤아린다. 레뒤 책마을은 유아, 해양, 역사, 예술, 항공 등의 분야별 전문 책방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책값은 일부 고서와 희귀본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5마르크(약 2천5백원)로 균일하다. 서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요소는 레뒤가 책마을이 된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채링크로스 로드

〈출판저널〉 제201호(1996년 10월 20일자)에 실린 기획번역가 박상준씨의 영국 웨일즈 지방의 책마을 헤이온와이 탐방기는 먼저 런던과 옥스퍼드의 서점가를 소개한다. 런던에는 채링크로스 로드(Charing Cross Road)와 대영박물관 앞에 헌책방들이 밀집해 있다. "특히 채링크로스 로드엔 '딜론'(Dillons)이나 '포일즈'(Foyle's) 같은 초대형 신간 서점도 있으므로 이 거리만 훑어도 충분히 뿌듯하다. 참고로 지하철은 채링크로스 로드 역이 아니라 레스터 스퀘어(Leicester Square)역에서 내린다. 역에서 나가면 바로 헌책방들이 보인다."

채링크로스 로드엔 헌책방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을 뿐 아니라, 여성학을 전문으로 하는 '실버 문' (Silver Moon)이나 추리 · SF 전문인 '머더 원' (muder one) 같은 전문 서점도 많다고 한다. 헬렌 한프의 『채링크로스 84번지』(이민아 옮김, 궁리, 2004)에는 채링크로스 로드에 있는 헌책방이 등장한다.

『채링크로스 84번지』는 2차 대전 직후 미국 뉴욕에 사는 무명 작가와 채링크로스 84번지에 소재한 헌책방 마크스 서점의 직원이 20여 년간 실제로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이다.



책을 주문하고 발송했다는 다분히 사무적인 내용이지만 편지의 갈피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묻어 난다. 두 나라의 서점 문화와 독서 문화를 짐작하게도 한다. 이 책의 이야기는 영화와 연극으로 여러 차례 만들어졌다. 앤소니 홉킨스와 앤 밴크로프트가 주연한 영화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대영박물관 앞에는 동양관계 서적과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신 · 구간을 취급하는 서점이 모여 있고, 약간 떨어져 있는 거리에는 '시네마 북숍' (Cinema Bookshop)과 SF 전문의 대형체인 서점 '포비든 플래닛' (Forbidden Plant)이 있다. 박상준씨는 대영박물관 앞의 서점 중에선 '언스워즈' (Unsworths) 서점을 추천한다. 이 서점이 고전 · 역사 · 예술 및 사회과학 분야의 신 · 구간을 두루 취급하면서 지하 매장에 책 수집가를 위한 자료서적을 구비하고 있어서다.

대학도시로 널리 알려진 옥스퍼드에는 약 30곳의 헌책방이 있고 새책방 또한 적잖다. 옥스퍼드의 헌책방 순례는 기차역 가까이 있는 대형 헌책방 '워터필즈' (Waterfield's)에서 나눠주는 '옥스퍼드의 골동품 고서 및 헌책방들' 이라는 안내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블랙웰' (B.H. Blackwell Ltd)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재를 풍부하게 갖춘 매장 규모가 독자를 압도하는 대형서점이다.

영국 웨일즈의 헤이온와이

내력 - 웨일즈 지방의 와이(Wye) 강변에 위치한 헤이온와이(Hay-on-Wye)는 쇠락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으나, 1961년 리처드 부스에 의해 책마을로 탈바꿈한다. 오래된 성, 버려진 집, 창고 들을 헌책방으로 바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가는 방법 - 런던이나 옥스퍼드에서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가서 헤어포드에 내린 뒤, 다시 버스를 탄다. 헤어포드는 런던에서 2시간, 옥스퍼드에서는 1시간 거리다. 헤어포드에서 헤이온와이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하루 6회 정도 다닌다. 버스에 몸을 싣고 시골길을 약 1시간 정도 가면 헤이온와이에 닿는다. 도착 즉시 헤이관광안내소에 들러 숙박시설을 소개받고 헌책방 안내지를 얻는다.

규모 -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전문 서점이 30여 곳이나 된다. 대학도서관과 맞먹는 40만권, 20만권을 보유한 규모가 엄청난 헌

책방도 여러 개다. 대형서점은 도서 분류가 잘 돼 있다. 예컨대 "18세기 이탈리아 문학 관련 서적"을 주제로 하는 서가가 있을 정도다.

주요 서점 - '리처드 부스 서점' (Richard Booth's Bookshop)은 40만권을 갖춘 가장 큰 헌책방이다. '정직한 서점' (honest bookshop)은 리처드 부스 서점이 운영하는 옥외 점포다. '헤이 시네마 북숍' (Hay Cinema Bookshop) 또한 20만권 규모의 대형서점이다.

책마을 운동 - 헤이온와이를 모델로 하는 책마을은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등지에도 세워졌다. 책마을 운동의 세계적 확산은 리처드 부스의 『헌책방마을 헤이온와이』(이은선 옮김, 씨앗을뿌리는사람, 20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헤이온와이의 내력을 소상하게 다루고 있기도 하다.

출판문화회관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 출판사의 시·군·구 소재지로는 서울시 마포구가 으뜸일 것이다. 마포에는 파주보다 출판사가 더 많다. 과거 신수동에 마포 출판단지가 있었다. 신수동에 건재한 출판협동조합에는 출판사들이 입주해 있다. 신수동 인근 용강동에도 출판사가 적잖다. 창작과비평사가 오랫동안 용강동에 터를 잡았었다. 마포구에서 출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교동이다. 현재는 서교동을 중심으로 동교동, 연남동, 합정동, 망원동 일원으로 출판사의 소재지가 확산하는 추세다.

우리 출판을 상징하는 건물로는 출판문화회관이 있다. 1975년 세워진 이 건물은 이듬해 대한건축사협회가 선정한 '아름다운 현대건축 10선'에 뽑히기도 했다. 필자는 출판문화회관 2층에 있는 〈출판저널〉 사무실에서 2년 가까이 일한 바 있는데, 검은 전돌의 건물 바깥벽은 특색이 있다. 내부는 나선형 계단이 독특하다.

출판계 원로들의 모임인 사간회가 펴낸 『준공 30주년 기념 출판문화회관 건립사』(2005, 비매품)는 출판문화회관의 건립 과정과 그 존재의의를 되짚은 책이다. 청와대 근처여서 고도제한을 받는 탓에 힘들게 4층 증축 허가를 받은 사연이 이채롭다. "옥상 층에서 청와대가 보이지 않도록 담을 높이 쌓는 조건으로 어렵사리 양해를 얻었다." 사간회(思刊會)의 명칭은 출판문화회관의 주소지를 음차한 것이다. 출판문화회관은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司諫洞) 105-2번지에 있다.